

VR·5G... 최신 콘텐츠 기술 광주서 선보인다

〈가상현실〉

38개국 참가 광주 ACE페어

내일부터 4일간 김대중센터

웹콘텐츠페스티벌 동시 개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이는 '2017 광주 ACE Fair(Asia Content&Entertainment Fair in Gwangju)'가 오는 21일부터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38개국 440개사가 참가하며 전시회, 라이선싱 상담회, 학술행사, 특별 부대행사 등을 진행한다.

최근 관심을 받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분야는 SK텔레콤과 실감미

디어기반조성사업단이 참가해 5G 네트워크 기반의 스포츠 체험 VR콘텐츠 및 몰입형 실감영상 등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선보인다.

한류문화 확산의 선봉장 역할을 한 방송영상 부문은 국내 지상파 케이블채널 3사와 CJ E&M 등이 참가해 UHD방송, 드라마,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등 신규 콘텐츠와 최첨단 방송 플랫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해외에서도 중국 최대 동영상 포털 사이트인 'YOUKU'를 비롯해 일본 Kyushu Asahi Broadcasting(방송·영상분야), 아르헨티나 Gem Go(게임) 멕시코 게임회사인 Alebrije Estudios 등 문화산업 분야 해외 유력기업들이 참가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2017 광주 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과 '문화콘텐츠 잡페어'를 동시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로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2017 광주 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은 중국 웹툰계의 대표적 플랫폼인 만화다오의 루이후이민 대표 등이 참가해 강연을 하고, 웹툰작가 사인회, BJ 팬미팅 등이 열린다.

BJ 팬미팅은 23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 앨런이 참가해 어린이들에게 생동감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 준다.

'문화콘텐츠 잡 페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한국직업방송과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구직자들에게 기업의 인재상, 기

업의 종류, 취업의 기술, 창업의 기술, 업계의 최신 정보 등 글로벌 정보까지 제공해 지역 인재들이 우수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제10회 청소년 방송콘텐츠경연대회(21~23), 캐릭터 퍼레이드(21~24), 코스프레 페스티벌(23~24), 보드게임경연대회(22~24), 지역 캐릭터 포토존(21~24)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며,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전시장 내 스탠프 투어 5개를 완성하면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신현대 시 문화산업과 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전시장을 찾아 최신 콘텐츠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장애학생 특수교육 개선 토론회 개최

광주교육해بار리가 최근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18일 교육정책연구단체인 광주교육해바라기에 따르면 최근 광주 '카페올더'에서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유선 광주장애인 부모연대표는 특강에서 ▲통합교육 중심의 특수교육 ▲소외받지 않는 장애학생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교사의 노력 등 특수교육을 살리는 길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전했다.

광주교육해바라기 이정은 상임대표는 "남구의 경우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조차도 없어서 40여 분 차를 타고 원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 특수학교 신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더불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했던 게 현실이었는데, 앞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교육해바라기는 광주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적 이슈를 찾아 실재를 파악한 뒤 해결책을 모색하는 교육정책분야 연구회다. 이 연구회는 교수·교사·학부모 등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교육해바라기는 시민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30개의 교육주제를 발굴한 뒤 '광주교육, 변화의 길을 찾다'(연속현장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보건연, 먹는 물 검사

복지시설·어린이집 대상

27일까지 무료 신청 접수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웃이 장시간 생활하는 시설의 먹는 물을 무료로 검사한다.

대상은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어린이집 등 65곳이다.

지하수는 질산성질소 등 46개 항목과 정수기 통과수와 함께 칼, 도마 등 주방 음식 자체도 검사한다.

신청은 20일부터 27일까지 시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에서 전화(062-613-7601~7604)로 접수한다.

한편 올 상반기에 먹는 물 66곳을 대상으로 정수기 통과 수 129건, 지하수 3건을 검사했다.

부적합 시설(부적률 14%)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해 원인을 분석하고 먹는 물 관리요령 등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 측정을 희망한 6개 사회복지시설에서 호흡기와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총부유세균 등 실내공기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은 "돌봄이웃이 거주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먹는 물 및 실내공기질 무료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직원 10여명은 19일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추석제수용품을 장만할 것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지하철 타고 전통시장서 추석 장보세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살리기와 사랑나눔 활동을 한다.

공사 김성호 사장과 나석주 객원부장 등 임직원 10여명은 19일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추석제수용품을 구매하는

장보기행사를 펼치며 전통시장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광주 시장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하철과의 연계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26일에는 김성호 사장과 이영상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대표가 광주시 광산구 나자렛집과 북구 돈보스코 나눔의 집을 찾아 쌀, 국수,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한다. 또 각 부서별로 봉사단을 꾸려 대대적인 추석맞이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을 펼치는 등 이웃과 정을 나누는 추석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공동체 프로그램 확대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계운)은 오는 12월까지 광주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사람책 도서관 학교, 예비수어 통역사 학교, 시민교육콘텐츠 제작 등 신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무릎짜기 전하는 인생매뉴얼'이라는

주제로 전개 될 사람책 도서관(휴먼라이브러리) 학교는 사람을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북토크 형태의 신개념 도서관이다. 미디어와 책의 신선한 만남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학습을

목적으로 광산구 마을방송과 연계한 사업이다. 오는 29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22일까지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1층 북카페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된다.

또 예비수어통역사 학교는 광주를 수어로 알리는 예비수어통역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3개반(오전, 야간, 주말)으로 28시간을 이수하는 교육과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자원봉사로 지역 변화... 500인 토론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시는 20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자원봉사자와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자원봉사 5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한다.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변화의 힘! 자원봉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우려진다.

원탁토론에서는 자원봉사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하며 겪은 경험을 나누며, 시민사회의 핵심동력으로서 자원봉사를 들여다본다.

특히 ▲자원봉사 가치에 대한 생각나누기 ▲마을공동체의 긍정적 변화를 위

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 ▲실천방안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청소년단체와 복지기관, 봉사센터, 언론계 등 각 기관·단체 유관업무 담당자와 시민 참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원탁토론은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통의 자리다"며 "시민들이 토론문화를 통해 자원봉사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조상땅 찾기' 을 들어 90명 이용

광주시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154명에게 253필지를 찾아주고,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90명에게 103필지 10만5000㎡의 토지를 찾아주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재산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다.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1월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의 '내 토지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직접 찾아 볼 수 있다.

이순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많은 시민들에게 조상이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각종 모임·행사·세미나는 지리산 온천지구 K호텔 에서!



★ K호텔의 5대 특징 ★

- ▶ 깨끗하고 저렴한 객실요금
- ▶ 넓고 쾌적한 대형 세미나실
- ▶ 전망좋은 바베큐 시설
- ▶ 무료로 사용 가능한 노래방 시설
- ▶ 직접 조리해서 먹을수 있는 식당
- ▶ 문의. 010-3605-5000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